



김우진, 김제덕, 이우석이 29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확정된 뒤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펜싱 국가대표팀 최세빈이 29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올라 하를란에게 석패한 뒤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뉴시스

사격·양궁 金, 유도 銀... 태극전사 메달 레이스 순항

반효진, 공기소총 올림픽 신기록 한국 남 양궁, 단체전 3연패 달성 허미미, 대구치와 연장 끝 반칙패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8강행 사격 최대한, 공기소총 결선 7위 펜싱 최세빈, 사브르 개인전 4위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 26일(현지 시간) 공식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태극전사들이 열린 사흘 째인 29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추가하며 순조롭게 메달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사격의 반효진(대구체고)은 금빛 총성을 울렸다. 반효진은 29일 오전 프랑스 파리 샤토루 CNTS 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사격 10m 공기소총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251.8점으로 황위팅(Huang Yuting·중국)과 동점을 이룬 뒤 슛오프

에서 10.4점으로 금메달을 확정 지었다. 특히 반효진은 예선에서 634.5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경신한데 이어 결승에서도 251.8점으로 황위팅과 함께 공동 올림픽 신기록을 썼다. 또 16세 10개월 18일의 나이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연소하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도 등극했다.

반효진은 한국 선수단의 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도 됐다. 한국 선수단은 2020 도쿄 올림픽까지 9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는데 이번 대회에서 펜싱의 오상욱(대전광역시청)과 사격의 오예진(IBK기업은행), 양궁의 전훈영(인천광역시청)·임시현(한국체대)·남수현(순천시청)에 이어 네 번째 금메달을 책임졌다.

이어 양궁에서 김제덕(예천군청)과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로롱엑스텐 보이즈)이 금빛 활시위를 당겼다. 김제덕과 김우진, 이우석은 29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양궁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프랑스를 5-1(57-57, 59-58, 59-56)로 완파했다.

랭킹 라운드 1위를 차지한 김제덕과 김우진, 이우석은 앞서 8강에서 일본을 6-0(57-53, 59-55, 57-54), 준결승에서 중국을 5-1(54-54, 57-54, 56-53)로 완파하며 가볍게 결승에 올랐다.

이들은 결승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면서 프랑스에 완승을 거뒀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남·여 동반 단체전 3연패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유도의 허미미(경상북도체육회)는 아쉬운 판정 속에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허미미는 29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샹드 마르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 유도 여자 -57kg 결승에서 크리스타 데구치(Christa Deguchi·캐나다)와 연장 접전 끝에 지도 세 차례를 받으며 반칙패했다. 허미미는 16강에서 팀나 넬슨 레비

(Timna Nelson Levy·이스라엘)를 상대로 연장까지 가 반칙승을 얻었고, 8강에서는 르하그바투구긴 엔흐릴렌(Lkhagvatogooiin Enkhriilen·몽골)에 안다리결기로 절반승을 거뒀다.

이어 준결승에서 하파엘라 실바(Rafaela Silva·브라질)와 연장 접전 끝에 위고쳐누르기로 절반승을 거뒀으나 결승에서 수비적인 전술을 구사한 데구치를 상대로 연장 2분 35초에 매치기를 시도했으나 심판은 위장 공격으로 판정, 세 번째 지도를 받으며 패배했다.

광주·전남 지역 소속 또는 출신 태극전사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화순군청 정나은은 김원호(삼성생명)와 짝을 이룬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김원호-정나은 조는 29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펬에서 열린 이번 대회 배드민턴 혼합 복식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정쓰웨이(Zheng Si

Wei)-황야충(Huang Ya Qiong·이상 중국) 조에 0-2(13-21, 14-21)로 완패하며 1승 2패에 그쳤으나 게임 득실에서 앞서 조 2위로 8강에 올랐다.

광주체고 출신 최대한(경남대)은 29일 오후 프랑스 파리 샤토루 CNTS 사격장 에서 열린 이번 대회 사격 10m 공기소총 남자 개인전 결선에서 145.2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메달권 진입에는 실패했으나 2004 아테네 올림픽에 나섰던 천민호와 제성태 이후 20년 만에 공기소총 남자 개인전 결선 무대를 밟았다.

전남도청 최세빈은 29일 오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올라 하를란(Olga Kharlan·우크라이나)에게 14-15로 석패하며 4위가 됐다. 비록 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32강부터 8강까지 상위 랭커들을 잇따라 격파하며 역전의 명수로 거듭났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막내가 보여준 정신력... 보이지 않는 조력자 심판”



파리 도착 6일차. 어제까지는 시차 적응으로 앓을 먹었지만, 오늘은 모처럼 깊은 잠을 잤고 이곳에 완전히 적응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컨디션을 끌어올려준 최대 에너지는 예기치 않은 승전보를 계속 전해준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이 아닐 수 없었다. 가장 좋은 보약을 먹고 있는 셈이다.

현지시간 29일 오전, 오늘은 한국체육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다. 그 역사적인 주인공은 이번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제일 막내인 사격의 반효진(대구체고) 선수였다.

반효진 선수는 사격 공기소총 10m 결선에서 우리나라의 하계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달성과 동시에 만 16세의 나이로 하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최연소 금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나는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이 소식을 듣고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니 막내답지

않은 침착한 경기운영과 막판 동점을 허용해도 흔들리지 않는 두들한 배짱과 강인한 정신력은 함께 있는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최근 스포츠는 스포테인먼트(sports+entertainment)의 합성어라고 한다. 세계인의 대축제인 올림픽은 더욱 그렇다. 오늘 그 경험을 했다.

먼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문화행사를 함께 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놀이’라는 전시를 관람하며 현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놀이 등을 설명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했다.

저녁에는 탁구 경기장을 찾아 응원했다.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탁구 혼성 복식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임중훈-신유빈 선수가 세계 1위 왕추천-쑤잉사 조를 만났다.

중국 팬들의 함성이 가득한 곳에서 분전했음에도 아쉽게 2-4로 역전패했지만 그 누구보다 잘 싸웠다.

이제 흥분을 상대로 동메달 결정전을 펼친다. 임중훈-신유빈 선수가 준결승 패배의 아쉬움을 꼭 누르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눈부신 스매시로 12년 만에 한국탁구에 올림픽 메달을 선물하길 바란다.

또 탁구 경기장에서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전남도탁구협회 전무이사 겸 전남도 출신인 박종엽 심판이 ‘포청천’의 역할을 부여받아 심판으로 맹활약하고 있었다.

박종엽 심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배정받아 한국 탁구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선수 못지않게 개인과 우리 전남체육의 무한한 영광으로 기억될 것이다.

스포츠는 선수만이 만들어갈 수 없다.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 선수와 지도자가 멋진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판, 그리고 그 멋진 경기력을 응원해주는 관중까지 ‘삼위일체’를 넘어 이제는 ‘사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파리에서 우리 선수들 못지않게 자신의 임무를 묵묵하고 멋지게 수행하고 있는 박종엽 심판을 보면서 한국에서 각 종목의 선수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 활약하는 한국에 있는 각 종목의 심판들에게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낸다.

올림픽은 그래서 체육의 아트(ART) 경연장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체육으로 행복을 느끼는 파리의 응원기는 ‘Ing’(계속)다.

정호연 “저와 광주FC 함께 알리겠다”

팀 K리그 ‘팬 일레븐’ 대체 발탁 오늘 오후 8시 토트넘과 맞대결

‘광주FC의 중심’ 정호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FC를 상대로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 팬투표를 통해 주인공을 가린 ‘팬 일레븐’에 대체 발탁되며 극적으로 팀 K리그에 승선한 정호연은 자신과 팀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팀 K리그에 발탁된 정호연은 오는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과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맞대결을 앞두고 “무언가 하나 보여 주면 좋을 것 같다”며 “다른 선수들에게 물어가고 싶지 않다. 광주FC를 대표해서 출전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팀 K리그와 토트넘의 맞대결은 이벤트 매치다. 하지만 광주FC는 지난해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맞대결에서 역전골 겸 결승골을 터트린 이순민이 깜짝 스타가 되며 독특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정호연은 “이벤트 경기이지만 열심히 즐겨볼 생각이다. 부담감은 전혀 없고 재밌을 것 같다”며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광주FC라는 팀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호연은 올 시즌 K리그1에서 마수걸이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25경기에 모두 출전해 5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번 토트넘과 맞대결에서도 어시스트를 올려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아직 팀에서도 골을 못 넣고 있어서 득점 생각은 하지 않는다. 공격포인트를 의식하면 경직되거나 위축될 수도 있다”면서도 “민폐 끼치지 않고 잘 어우러져 보겠다. 가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수로서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